



예술인 열전 | 운산 허영상 서예가

겨울을 이겨낸 마화향기처럼

공직 생활 접고 전업작가의 길 선택 “중풍으로 쓰러진 후, 삶의 이유가 된 서예”

겨울의 문턱에서 그를 만나러 가는 길, 봄날의 매화를 생각한다. 겨울은 세상 만물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품어주는 계절이기에, 매화의 향기가 그토록 그윽한 것은 겨우내 모진 시련을 이겨내고 피었기 때문이기에. 생각이 계절을 앞섰나보다. 묵향 가득한 작업실에서 운산 허영상 작가를 만났다.

운산 고향에서 선친께 배운 붓글씨

그가 붓을 처음 본 건, 촌부였던 아버지(고 허희만)의 책상 위였다. 겨울밤이면 아버지는 으레 떡을 가셨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아버지의 유일한 취미는 붓글씨였다. “촌부셨지만 자식을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 크셨던 것 같아요. 사형제가 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웠어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제게 붓을 건네주셨어요. 그때부터 선친께 서예를 배웠어요. 엄한 분이셨죠. 회초리를 맞아가며 배웠어요.” 유독 글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막내아들은 아버지에게 붓글씨의 기본을 배웠다. 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붓글씨에 대한 애정은 계속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배움에 대한 갈망도 커졌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퇴근해서 저녁상을 물리면 붓을 들었어요. 새벽까지 떡을 갈고 글씨를 쓰는 일이 잦았죠. 단칸방에 살던 시절이었거든요. 애들은 옆에서 자고 나는 앉은뱅이책상에서 붓글씨를 썼어요. 꿈에서도 붓글씨를 쓰고... 그렇게 질리지 않았더라고. 붓글씨라는 게...” 당진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했던 그는 급기야 조기 퇴직을 선택했다. 서예에 매진하기 위해서였다. 무엇이든 어설프게 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직장을 그만 둔 이유였다.

전업작가로의 삶, 스승과의 만남

1993년 퇴직 이후 그는 지금까지 서예에만 몰두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갈고 붓을 든다. 아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퇴직 후 그는 아내와 함께 당진과 서산에서 새터서예학원을 운영했다. 서예학원의 인기는 제법 좋았다. 그러다 곧 IMF가 터졌다. 사교육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학원 수강생들도 줄어들었다. 학원 운영은 제자와 아내

에게 맡기고 허 작가는 개인 작업과 연구에 몰두했다. 사제의 연을 맺은 남계 조종국 선생으로부터 글씨를 배우고 익히는 것에 집중했다.

“아버지에게 배운 필법과 선생님의 가르침이 같았어요. 기초가 잘 못 되었다라면 큰 고생을 했을 텐데 말예요. 조종국 선생님은 전서의 대가세요. 전 그전까지 구양순체 하나만 갖고 뒀었거든요. 선생님께 전서를 배우면서 해서 말고도 다양한 필법을 익히게 되었죠.”

그는 국전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서예대전을 쫓아다니며 글씨를 연구했다. 대전과 당진을 오가며 서예공부에 매진하던 어느 날, 뜻밖의 시련이 닥쳤다.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이 차고 매서운 겨울날과 같다.

“붓을 들지 않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한 달을 입원해 있었나 봐요. 중풍으로 쓰러져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서산학원이 2층에 있었어요. 거길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부축하고 한 사람이 뒤에서 밀고... 혼자서는 걷는 건 고사하고 똑바로 앉아 있기도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더군요.”

한 손으로 가벼운 붓을 들고 글씨를 써야 하는 서예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예술이다. 획 하나를 긋는 일이 곧 작품의 성패를 결정하는 서예가에게 반신불수란 병은 곧 사망선고와도 같았다.

“붓을 들지 않으면 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찌면 붓글씨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모진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는 약착같이 재활 치료에 매달렸다. 침을 잘 놓는다는 한의원을 찾아 전국을 헤맸다. 동시에 서예 연구에도 더 몰두했다. 주말이면 인사동 고서점에 하루 종일 박혀 살았다.

“서예에 대한 지금의 간절함은 (아프기)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붓을 들고 한 획을 쓰는 것만도 이전에 비해 몇 십 배, 몇 백배의 노력과 연습이 더 필요하니까요.”



>>2면에 계속
글, 사진 우현선

사진으로 보는 세상 - 2016 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마음의 고향



»이민용
·전국사진공모전2010년도부터19회수상·2015당진 올해의 사진작가
·현당진사진동우회회원

2016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 당선작가의 시선

시 한편 | 정기원

행복한당진

구름이 머물다가는
푸른 평야, 해나루
햇살로 키운 쌀을 일어떡을 빻었다

꽃과 나비 찾아들고
웃음소리 기침을 하는 새벽녘부터
아미산 길게 뻗은 시가지까지 이어진 들레길

사람이 모여드는 문예의 전당
한해 삼백육십오일 노랫소리 빠져들고
깃털 입에 문
학들이 당진천에 등지 틀었다

쌀가마 짙어지고
숨가쁘게 계단 오르다
하얗게 출렁이는 장고항파도
넓게 퍼진 갯고랑 사이로
흘날리는 불빛 환하게 퍼진 서해대교

그너머 당진이 활짝 열려 있다
행복한 당진이 열려 있다

시집 「바람을 기다리는 오후」 중에서

»정기원
·월간「문학공간」신인상등단(2002)
·충남문인협회 및 충남시인협회 회원
·전 호수시문학회 회장
·작품집 「벽에 걸린 세월」, 「돌탑에 소망을 얹다」 등

»1면에 이어서



“서예술은 언어의 예술이며 소통의 예술로서 종이와 먹을 이용한 붓놀림은 서자 자신을 정화하면서 인격도야를 위한 정신운동이기 때문에 십수년을 마비된 반신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소생했는지도 모른다.”(심음섭 서예가)

2017년9월 당진문예의전당에서 오랜만에 그의 개인전이 열렸다. 전시된 작품은 모두 전시회를 위해 제작한 신작이었다. 당초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전시회가 9월로 지연된 연유이기도 하다. 육신의 고통을 이겨내고 병마와 싸우며 지키고자 했던 서예인으로서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오랜 인연을 맺어온 심음섭 서예가(순천향대 명예교수)는 ‘운산 허영상 초대전에 부치는 글’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운산은 한문 뿐만 아니라 우리 한글의 판본까지 두루 섭렵하면서 서맥을 지켜왔다. 이번 초대전은 그동안 일구어 온 발자취가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리라 믿는다. 한 생을 일관되게 엮은 흔적들이 병마를 이기는 승자의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을 생각하니 붓 한 자루의 위력이 묵향으로 적셔질 때마다 설렘으로 혼불이 되었으리라.”

매일 붓을 든다. 묵향 가득한 연구실로 들어설 때면 모든 근심과 잡념이 사라진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붓에 먹을 적신다. 매일 8시간에 가까운 시간이다.

“수십년을 써왔지만 아직도 내 성에 차지가 않아요. 서예란 게 그렇죠. 보통의 노력으로는 작가의 반열에 오르기 쉽지 않은 분야예요. 기술 배우듯 몇 개월, 몇 년의 익힘만으로는 서예가라고 명함을 내놓을 수 없죠. 모든 예술인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너무 쉽게 꺾이기만 가르치고 배우지 않길 바랍니다.”

그는 바란다. 앞으로도 계속 붓을 들 수 있길. 그리고 나아가 제자들이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길.

- 허영상작가
-서산운산출생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서도대전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초대작가 운영, 심사위원 역임
-한국서예협회 운영 이사
-한국국제서법연맹 이사
-일월서단 회원
-새터사회 명예회장

칠순을 넘긴 허영상 서예가는 여전히

글, 사진 우현선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 당진문화예술학교

발행처 (재)당진문화재단 | 발행인 이명남(당진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총괄 문옥배(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 기획총괄 이동희 | 기획 오수용

충남 당진시 무수동2길 25-21 (당진문예의전당) T. (041) 350-2910~6 F. (041) 354-6605/352-6896
www.dangjinart.kr / 취재 편집 인쇄 (주)당진시대신문사

※본 책지에 실린 내용과 사진은 당진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당진문화재단 핵심사업 1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극단 당진'

'공연단체육성'과 '공연장활성화' 일거양득



극단당진, 창작뮤지컬제작발표성과거둬 레퍼토리공연개발, 시민대상교육프로그램도 진행

당진문예의전당은 지역을 대표하는 공연장으로서 지역의 공연예술단체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지역 공연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연장 상주단체를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충남 문화재단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됐다. 당진문예의전당은 이 사업의 육성 단체로 극단 당진을 선정, 뮤지컬 '그날'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8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대상 단체로 선정된 극단 당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창작공간과 함께 기획 및 행정업무를 지원받아 공연 및 관련 콘텐츠를 개발했다. 상주예술단체인 극단 당진은 우수작품의 창작 개

발을 위해 신작 공연을 제작하고 레퍼토리 공연을 개최했다. 더불어 퍼블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하면 이번 사업과 관련한 예산 집행 및 정산을 직접 수행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정부의 전용 시스템을 통해 상주단체가 직접 예산을 정산하고 당진문예의전당이 이를 관리 감독했다.

한편 당진문예의전당은 사무실과 연습실 등 상주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주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주체적으로 수행했다. 기획 및 제작지원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예산 정산의 관리감독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상주단체의 창작역량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가 하면 당진문예의전당 무대기술인력의 지원 및 공연 제작에도 적극 참여했다.

당진문화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지

역 전문공연예술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작품을 제작하고 개최함으로써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창작뮤지컬 '그날' 제작, 공연

극단 당진은 이번 지원사업의 성과물로 창작 뮤지컬 '그날'을 제작하고 당진전국연극제를 통해 발표했다. 개막작으로 선보인 '그날'은 지역의 민족예술가를 조명하는 작품으로 민족시인 심훈의 예술세계와 일대기를 조명한 작품이다. 특히 전문인력의 협업과 외부 예술가 영입을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재단은 이 공연을 일회성 공연이 아닌 지역 고유의 공연예술콘텐츠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주단체 극단 당진은 당진문예의전당과 함께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콘텐츠를 제작 보급하는 데 일조하

기 위한 레퍼토리 공연으로 <아비>를 개최했으며, 지속적인 공연을 계획 중이다.

2018 제34회 충남연극제 대상 수상작인 <아비>는 유산문제로 빚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과 인간의 추악한 탐욕 등을 웃음과 눈물이 교집합되는 드라마로 그려낸 작품이다. 극단 당진은 <아비>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만나고 진지하게 돌아보며 부모형제도 없는 물질만능시대에 가족의 사랑을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의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계기를 선사하고자 했다.

사업의 일환으로 당진문화재단과 당진문예의전당, 극단 당진은 공동주최 주관으로 연극 <아비>를 지난 7월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공연했다. 전석무료로 진행된 공연은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대중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한편 당진문예의전당과 극단 당진은 공동주관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당초 계획했던 퍼블릭 프

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문화소외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연극과 뮤지컬, 그리고 국악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 함께 실습해보는 렉처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어 공연장을 찾아오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공연장과 예술단체간 협력을 통해 상주단체는 안정적 제작환경을 확보하고, 공연장은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여 지역 공연예술분야 발전과 공연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다 할 수 있다. 특히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 관계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선진문화가 향상되니 한 사업으로 세 마리, 네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당진문화재단 핵심사업 2-2018 당진아트콜로키움

지역의시인들과시민들이 한데모여시(詩)를논하다



당진문화재단첫문학교육프로그램운영 신대철시인초청,발제와자유토론,창작활동

당진문화재단이 올 가을 지역 예술가와 시민들이 모여 예술적 사고와 철학을 함께 사유하고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2018 당진아트 콜로키움이란 이름 아래 개최된 프로그램은 문학장르 중 시 분야에서 역량을 검증받은 정상급 전문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담론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018 당진아트 콜로키움은 '스토리가 있는 시, 행복으로 다가서다'를 주제로 10월16일부터 11월13일까지 5회에 걸쳐 운영됐다. 당진문화예술학교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당진시민과 지역 예술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제자로 특별 초청된 신대철 시인과 시에 관한 이론교육 및 사례연구, 창작활동과 자유토론 등의 시간을 가졌다. 발제자 신대철 시인은 좋은 시란 무엇인가, 시를 쓰는 이유와 운율에 관한

고찰, 창작의 기본 태도와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스토리가 묻어 있는 시 창작 활동에 대해 매주 발제하고 발제문을 토대로 참여자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었다.

콜로키움(Colloquium)이란 라틴어로

"모여서 말하기, 대화하기"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에는 24명의 시민이 참여해 5주간의 교육을 이수했다. 참가자들은 "시 분야를 더욱 깊게 배우고 싶은 계기가

되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재단 관계자는 "문학 분야의 첫번째 교육이었음에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았고 그동안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진행하는 타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재단의 사업과 당진문화예술학교를 알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대철 시인은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같은해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어 등단했다. 국민대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국민대 명예교수이다. 1977년 첫시집 <무인도를 위하여>를 출간한 뒤 산문집 <나무 위의 동네>와 시집 <개마고원에서 온 친구에게>, <누구인지 몰라도 그대를 사랑한다>, <바이칼 키스> 등을 출간했다. 백석 문학상, 박두진 문학상, 조지훈 문학상, 김달진 문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심의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기획 *it* 수다 당진의원도심재생 - 4부 '원도심문화공간읽기'와 '도시문화재생탐방'

기억의역사로다시보는, 당진 원도심



원도심의역사를기록한첫자료집으로서의미 책발간과포럼통해원도심의시공간탐색

인구의 도시 집중은 공간을 부족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외곽의 확장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관공서가 이전하고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었다. 이는 곧 원도심(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켰다. 당진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개발이 시작되면서 원도심 재생 문제가 자연스럽게 대두됐다. 한편 원도심 재생의 성공적인 대안으로 '문화, 예술적 접근'이 떠오르고 있다. 이와 맞물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2018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이 그것이다. 이어 올해는 <기획 it 수다>를 통해 당진 원도심 재생에 관한 이모저모를 총 4부에 걸쳐 다룬다. 지면을 통해 당진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을 만나보고 당진문화재단의 '당진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심는순서

- 1부 원도심의역사와재생운동
- 2부 원도심의문화와당진시장
- 3부 원도심사람들
- 4부 '원도심문화공간읽기'와 '도시문화재생탐방'



당진문화재단은 원도심 재생과 관련하여 그동안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 온 일련의 사업들에 이어 올해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사업을 진행했다.

그 성과물로 다가오는 12월 원도심의 옛 사진과 시민들의 이야기를 구술한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는 당진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당진문화재단과 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한다.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옛 이야기> 발간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옛 이야기>(가제)는 당진 원도심의 공간을 사진을 통해 새롭게 탐색하고 있다. 재단은 원도심의 도시 재생과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지역민이 지속적으로 원도심을 문화공간으로서 관심을 갖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책 발간과 더불어 진행되는 포럼을 통해 원도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지역의 스토리와 공간을 문화사업으로 연결해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원도심 일원을 담은 옛사진을 수집하고 정리했다. 당진 원도심의 뿌리를 찾고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진 수집 작업 결과,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원도심의 건물, 행사, 사람 등이 담긴 90여 장의 의미있는 사진 자료를 수집했다. 책 제작팀은 사진을 매개로 동시대

를 함께 겪어 온 다양한 직업군의 원도심 주민들을 만나 문화적 기억을 구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원도심의 과거와 현재, 시공간을 탐색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12월 중순, 원도심 문화공간 읽기 포럼 개최

<사진으로 만나는 원도심 옛 이야기>(가제)에 실린 사진 속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원도심의 상가와 골목, 문화가 녹아 있다. 책자에 실린 사진들은 사진 속 간판의 세자리 수 전화번호, 눈발을 헤치고 차 배달을 가는 다방 종업원, 당진 옛 시장의 노점상인들, 당진읍내 유명 주점이었다던 기와집 등 원도심의 옛 풍경이 주를 이룬다.

책 제작팀은 구술 후기에 이렇게 적었다.

"원도심은 당진의 1번지였던 옛 명성을 잃고 점점 공동화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는 상인들이 있다. 수십년째 혹은 대를 이어 가게를 여는 터줏대감도 여럿이다. 원도심이 주변의 신도심에 비해 쇠퇴했다는 이유로 방치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지역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여전히 향토사의 한 자락을 써내려가고 있는 원도심. 이 책은 그곳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는 이들에 대한 기록이다. (중략) 이 작업이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고, 누군가에게는 현재의 원도심을 돌아보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원도심의 미래를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한편 재단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의 삶과 나아가 우리의 삶을 기억의 역사로 되돌아보며 현재 원도심 문화로 녹여져 있는 일상의 건물 그리고 보존과 개발의 양면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의 자원적 가치로써의 원도심 문화 재생을 함께 재고하고 이를 지역 원도심의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발간된 책을 중심으로 지역내 토론회와 발제자, 시민이 함께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당진 원도심의 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포럼이 오는 12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원도심 문화 재생의 효율적 방법과 앞으로의 도시문화 재생의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18문화기획인력양성프로그램 - 도심문화재생탐방

전북 일대 도심문화재생 선진지역탐방



1박2일간, 지역문화기획인력 40여명 참가 성공사례 통해 우리 지역 원도심 재생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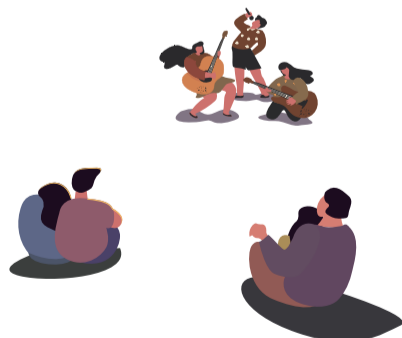
당진문화재단이 2018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의 주제로 도심문화재생을 선정, 타 지역의 도심문화재생 성공 사례를 견학하고 우리 지역의 원도심 재생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선진지역 견학을 통해 문화와 건축의 재생에 대한 의미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현지 도심문화재생 관련 견학과 더불어 강의를 진행, 실무적인 문화기획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문화기획 인

력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인식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참가자들은 지역도심문화재생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견학일정에 참여하고 도심문화재생 전문건축가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를 청취했다. 프로그램에는 지역의 문화기획인력 및 시민 43명이 참여했다. 교육프로그램은 11월2일과 3일, 1박

2일간 전북 일대에서 진행됐다. 첫째날 참가자들은 삼례문화예술촌과 봉동 복합문화지구 누에를 둘러보고 전주를 찾아 전주 지역사례 중심으로 본 도심문화재생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고은설 강사는 건축도시문화기획자로 현재 예술기획연구소 아트컬처 별의별 대표를 맡고 있다. 강의 이후에는 참가자 전원이 함께 강의 주제와 관련하여 토론하고 지역문화기획인력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에는 황순우 대표가 팔복예술공장 및 국외 사례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으며 강의 이후 참가자들은 팔복예술공장을 견학했다. 황순우 건축사 사무소 바인 대표는 팔복예술공장 총괄 기획자로 깃골 생태공원, 대구 문화창작교류센터, 인천 아트플랫폼 등을 설계했다. 한편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견학과 강의를 통해 당진의 도심문화재생에 필요한 사항들과 대안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장에서는 도매 시장 양성, 중년층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의 확충, 당진의 명소 알리기, 임대료 인하, 도로변 벽화마을 조성, 젊은이들을 위한 정기적 축제 기획, 당진 올레길 조성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은 당진문화재단의 예술전문인력 육성 사업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예비문화기획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 문화기획인력 양성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문화예술 종사자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계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지역의 예비문화기획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실무 능력을 키움으로서 지역 내 다양한 형태의 문화 활동을 양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가 산책



그림책으로 만나는 행복한 문화생활



윤희정
한국그림책연구소연구원

개인적으로 선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문화상품권이다. 문화상품권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다. 문화의 요소들로 흔히들 이야기 하는 연극, 영화, 음악, 미술, 문학을 내 맘대로 골라 보고, 듣고, 읽고, 느끼는 재미와 행복이 그 종이에 있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소비는 도서 구입비에 쓰인다. 도서 중에서도 그림책을 사서 읽을 때가 가장 신난다. 책을 읽으며, 책과 그림에 신나고, 이 책을 읽으며 아이들과 어른들과 놀 생각에 신난다.

아이를 키우면서 그림책을 보았다. 그림책을 접하면서 아이들과 신나게 도서관 투어도 많이 하고 손에 등에 한 가득씩 책을 들고 메고 다녔다. 아이들이 읽었던 책 중 소장하고 싶다는 책은 구입하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하는 책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산지 어언 10년. 집에 그림책의

비중이 80%이다. 지금은 그림책으로 책 놀이 지도와 어른들 대상으로 책놀이, 독서 지도 자격증 과정을 강의하러 다닌다.

책을 통해 만나는 아이들의 연령대는 다양하다. 당진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3세부터 만나는 수업에서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어른들도 젊은 청년부터 임신부, 돌봄교사 특수교육교사, 초중등 교사, 나라 노인복지센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림책으로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그림책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힘이 있다. 그림은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건넨다. 아이들은 그림 속으로 빠져들며, 아이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한다. 자기의 생각 표현은 색과 면, 선의 그림이나 만들기, 몸짓, 음악, 글의 다양한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유도한다. 비단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도 이러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데 즐거워한다.

당진에 2013년 8월에 이사와 열심히 그림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처음으로 강의의 문을 열어준 당진시립도서관과 송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어른들과 아이들의 만남에서 삼봉초등학교의 책읽어주기 봉사, 지금은 당진뿐 아니라 타 도시의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러 다닌다.

그러나 아직도 배고프다. 그림책으로 배부른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림책으로 나를 돌아보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여기 저기 강의를 다니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행동을 보고, 어른들의 하나같이 마음의 힐링을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그림책의 힘을 자신한다.

그림책으로 이야기 나눌 장소와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 달라고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어드린 기억은 충남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500여분의 초등교

장선생님들 앞에서 책을 읽어드렸다. 아이들의 마음과 부모와 선생님의 이야기가 잘 녹아 있는 "흔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책이다.

그림책으로 나를 찾아가는 인문학 여행, 최근 수업했던 그림책으로 글쓰기 강좌, 그림책 놀이터 등 그림책이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역량은 나와 가족과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만들어나가자고 말하고 싶다. 유아교육이나, 부모교육, 교사 연수 등 그림책으로 만나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키워낼 수 있는 기관과 자치단체가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다.

책 읽는 가정, 책 읽는 학교, 책 읽는 당진의 문화의 꽃이 활짝 피길 기대해 본다.

책이 넘쳐나는 가정을 만들어보자

예술인 칼럼



황영애
한국문인협회 호수시문학회회원
당진문인협회사무국장

이 세상에 아니 이 땅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덕분에 만나게 되는 온갖 만물의 형상들, 내 손길과 눈길, 마음 한 조각 나눌 때마다 낯선 표정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아이계주(夜以繼晷)로 흐르는 역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는 시대에 불확실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문화예술인들은 그래도 가치 있는 삶을 위해 위상을 강화시키며 수준 높은 작품 구상을 위해 고민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을 깨달았다. 창조적 인격 형상을 위한 아름다운 작업이라 할 수 있겠다. 참으로 외연

과 내연(來演)을 관통하는 열린 문화 예술인의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당진에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6년이 되었다. 재단출범이 지역문화 예술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므로 예술인들의 관심 속에 출발하여 지금까지 특색 있는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특히 수준 있는 공연, 교육과 예술인 창작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어 당진도 문화예술의 명품 도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낀다.

나는 남들이 말하는 시인으로 시를 쓰는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

청탁이 많거나 독자가 나의 신작을 에타게 기다리는 소위 잘나가는 시인은 아니다. 하지만 품잡고 앉아서 시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노력하고 연습하고 실행하는 것을 실천하며 짧고 강하게 내지르려 신음한다.

튀어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진실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 당진문화재단 올해의 문학인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 시집을 냈다. 예술가로서 보상과도 직결된 것이기도 하지만 굳이 그 가치를 따진다면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무한한 문화재원이란 말하고 싶다. 책 한 권을 내려면 나무

7루가 잘려져 나가고 독자들이 읽지도 않는데 신간서적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나는 반박하고 싶다. 각종 sns에 아무 말 대잔치, 줄임말, 은어 등이 난무하여 아름다운 우리글을 훼손시키는 것을 최신 유행이라는 핑계와 변명들로 너그럽게 보아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름다운 우리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작가들이지 않느냐. 앞으로 종이책이란 매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래도 1000년 이상을 버텨 온 종이책이 쉽게 무너지겠는가. 다행히

내게 힘을 실어주는 보도가 나와 소개해 본다. 호주와 미국 연구진이 책을 집 안 가득 쌓아놓는 것만으로도 지적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대강 연구한 것이 아니라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 5년 치를 분석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책이 많은 분위기에서 자란 성인들은 언어, 수학,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며 학창시절 학업 성적도 장서의 규모와 비례한다고 하니 먼지를 먹더라도 가정에 책을 쌓아보자. 제발

2018 당진문화재단 문학사업 선정작 출판기념회

2018. 12. 15. SAT 11:00

당진문예의전당대공연장 로비

만나고 싶습니다 | 문화회원 김지숙 씨

“재단은 타지에 정붙이게 해준 절친”



아이와 함께 당진가족오케스트라 활동 계기로 꾸준히 공연 관람 “문화 활동 통해 아이-엄마 서로 이해하는 기회가 됐어요”

“당진문화재단은 제게 낯선 타지에서 정붙이며 살 수 있게 해준 절친 같은 존재예요. 우연히 가족오케스트라에 참여하면서 문예의전당에서 하는 공연도 보게 됐어요. 그렇게 한두번씩 방문 횟수가 늘어났어요. 오케스트라가 해체되고 나서도 함께 했던 단원들과 인연이 계속 이어졌고요. 문화재단 덕분에 지역에 이웃도 생기고 친구도 생겼죠. 자연스레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주최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됐고 참여하는 기회도 찾아졌죠.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리며 살게 되니 지역에 대한 애정도 사는 재미도 커진 것 같아요.”
연고 없는 타지로 이사를 해본 경험 덕인지, 김지숙 씨의 말에 쉽게 공감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낯선 타지가 ‘우

리 동네’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보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 아닐까.
“우연히 가족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처음에는 아이에게 악기하나쯤 가르쳐주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했죠. 혼자 배우는 것보다 엄마가 함께 하는 거니까 아이가 적응도 더 잘하고 편하게 생각하겠단 생각이었어요. 온전히 아이를 위해서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엄마랑 아이가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전 아이에게 배울 점이 생기고, 아이도 엄마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함께 무대에 오른 경험도 참 소중한

고요.”
김지숙 씨는 아들 인우진(서정초 5)군과 함께 당진가족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익혔다. 오케스트라가 해체된 이후에도 꾸준히 개인레슨을 통해 아들과 함께 악기를 배우고 있다. 당진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당진가족오케스트라를 운영했다. 이후 2107년부터는 당진시민오케스트라를 운영 중에 있다.
김 씨는 주로 아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는다. 처음에는 공연 도중 골절 줄기도 했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공연을 즐기게 된 듯하다.
“처음에는 자도 공연장에서 자는 게 낯지 않아서 데리고 다녔어요. 집에 TV가 없어서 문예의전당에 공연 보러 가는

시간을 TV보는 시간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죠. 뮤지컬, 클래식 공연, 연극 등 장르를 따지기 보단 시간이 맞으면 그냥 보러 왔어요. 아들도 이제는 공연이 끝나고 나면 제법 나름의 평가를 하면서 즐기게 된 것 같아요. 아이와 공연을 함께 즐기는 이 시간이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공연을 보는 일은 아이만큼 김지숙 씨에게도 의미가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여유를 갖는다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문화 공연은 또 그 감동이 오래가잖아요. 공연을 보러 다니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밝아진 느낌이에요.”
일과 가사, 육아·월세 없는 일상의 반

복 속에 공연 관람은 화려하지 않지만 제법 큰 감동을 주는 일탈이 되었다.

김 씨는 신평면 거산리에서 남편 인치성 씨와 함께 학원을 운영 중이다. 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청소년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시내에 사는 청소년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읍면단위에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읍면 단위에 사는 청소년들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재단에서 더 많이 기획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수행평가를 위한 공연 관람이 아니라 끝까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시각에 맞는 공연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 사진우현선



문화재단 **人** | 이양훈 무대기술팀 음향감독

소리가만드는감동

음악에심취한소년, 음향에빠지다

“음향”으로 20년을 일했다. 중학교 때부터 대중음악에 심취한 소년이 있었다. 다행히(?) 노래는 못 불렀다. 회식 때 그의 노래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씩 잘하지는 못했던 거 같다. 그러니 기술적 관심이 생긴 거다.

“노래 잘 했으면 음악을 했을 겁니다.(웃음) 고등학교시절 교회를 다녔는데 방송실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면서 음반 관련된 곳에서 일해야겠다는 소망을 가졌죠. 고3때 수능을 본 후 음반관련 스튜디오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견습생 이었죠.”

수능이 끝났다. 일찍 학교를 끝내주면 오후엔 스튜디오로 출근했다.

“주로 앨범작업과 음악편집, 애니메이션 더빙 등을 배웠어요. 졸업 후 정식 출근해서 군대가기 전까지 1년 6개월 일했습니다.”

하지만 군 제대후 그가 다녔던 스튜디오가 사라졌다. 시대 흐름에 따라 음반을 사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은 것이다.

대학에 입학했다. 당시 대학은 방송기술 분야는 있었지만 음향관련 전문학과가 없었다. 그가 경영학을 공부한 이유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음향 회사로 취직했다. 주로 콘서트, 뮤지컬, 대중음악, 방송, 연극 등 분야를 오가며 일했다. 2년쯤 지나자 이마저도 경기가 좋지 않아 문을 닫았다. 이번엔 서울의 한 공연장에 입사했다. 이곳에서 6여 년 일하다 지난 2014년 11월 음향감독으로 당진문화재단에 오게 됐다.

공연장의 소리를 전담하다

음향분야는 하는 일이 세분화 되어있다. 스튜디오, 테마파크, 콘서트, 뮤지컬, 공연장, 방송 등 다양하다. 보통 음향 감독과 음악 감독을 혼동하는데 엄연히 분야가 다르다고 한다.

“음향 분야도 정말 다양합니다. 세분화 되어 있어 이 분야를 모두 잘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공연장에서 음향감독은 공연장 음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나 장비컨트롤 또는 외부팀이 들어오면 음향을 지원하고 공연을 운영하게 됩니다. 공연의 모든 소리 책임을 지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요. 연극이나 뮤지컬 분야는 음향디자이너가 필요해요. 일을 하다 힘들면 내일로 미뤄할 수 있지만 음향은 그렇게 못합니다.”

공연장의 특성상 여러 장르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오케스트라, 연극, 무용, 대중음악 등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상 음향 연출은 어떻게 다를까?

“음향은 균형(조율)이 핵심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9개 단체와 일하며 다양한 장르를 경험해 봤어요. 공연이 들어오면 꼭 리허설을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오케스트라의 경우 각 악기가 소리를 내다보니 음향 비중이 크지 않고요. 연극이나 뮤지컬은 내용을 모르면 음향디자이너를 할 수 없어요. 연출 방향이나 의미도 알아야 하는 거죠. 국악같은 경우는 연주자 능력치

가 큰 공연이라 음향균형을 잘 맞추면 됩니다. 장르에 따라 내용을 알고 디자인해야 합니다.”

그가 보통 콘솔(음향기기)을 잡고 올리는 공연은 대략 1년에 120건(최대치)에 이른다.

그가 꼽은 음향의 매력은 매번 다르다는 것이다. 리허설 때와 본 공연때가 서로 다르다. 기계가 아닌 이상 음향은 상황을 보며 맞춰가는 거라 라이브 느낌이 많이 난다.

장비의발전, 꾸준한습득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장비의 발전으로 과거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음향도 마찬가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과정인데 제작회사마다 다르다 보니 접근을 얼마나 정확히 빠르게 하는냐가 중요하단다. 출시된 모든 장비를 모두 능수능란하게 할 수는 없어 지속적인 공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외부팀이 들어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모르면 못해요. 예전 장비는 그나마 알기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하지만 새로운 장비는 모든 기능과 사용법을 숙지해야 조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한 공부 필요하죠.”

좋은 장비가 무엇이나고 물었다.

“어떤 장비가 좋고 어떤 스피커가 좋은지는 답을 낼 수 없어요. 각자 좋아하는 소리가 따로 있어 자기에게 맞으면 그것이 좋은 장비인거죠. 요즘 장비들은 웬만하면 다 좋아요. 나에게 맞나 안 맞나는 선호도 차이죠. 물론 비싼 게 좋은 게 많겠죠. 답을 낼 수 없어요.”

20년을 일하는 동안 실수도 있었다.

“장비오류로 애먹은 적이 있어요. 전국 무용콩쿠르대회를 할 때였는데, 음악을 CD보며 매일 넣을 수 없어, 모아서 했어요. 그런데 출연자가 갑자기 뒤로 빠지더라구요. 다른 음악이 나간 거죠. 콩쿠르인데 개인에게 큰 불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겪어보니 공연은 화려함보다 안정성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경험은 안정적 공연 마무리에 중점을 두



는 계기가 됐어요.”

무대기술팀의 3가지 파트(무대, 조명, 음향)는 성격이 다르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하나로 묶어 이해하는데, 사안에 따라 음향 비중이 크고 조명이 작을 수도, 조명 비중이 크고 음향이 작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되는데 왜 안 되냐고 하면 난감하단다.

“무대 위에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공연팀도 있고 무대, 조명, 음향, 기획연출팀도 있고요. 일을 하다보면 항상 부

딛힐 수밖에 없어요. 가령 무대연출을 위해 불을 모두 꺼버린다면 음향 작업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타임레이블을 디테일하게 작성해야하죠. 어떤 경우는 정말 음향이 불가능하고 조명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출연 기획자는 좀 더 좋은 공연을 위해 다른 방향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모두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다보니 티격태격 하기도 해요. 서로의 호흡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악기간균형이중요하다

그의 집엔 음향, 영상 등 개인장비가 거실과 방방마다 쌓여있다. 엔지니어들은 제품이 나오면 모두 다루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보통 음향엔지니어들은 잡소리를 못 참아요. 차안이나 방에서 소리가 나면 고쳐야지 못 참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게을러서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다만 공연 할 때는 날카로워집니다. 음향은 시시때로 변해 갑자기 현장에서 틀어진다 하면 더 날카로워 집니다. 그래서 사전계획이 중요하구요.”

인간의 오감이란 것은 나이가 먹으면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청력은 음향 엔지니어에게 중요하다. 막귀인 필자는

볼 수 없는 그의 청력상태가 궁금했다.

“젊은 친구들은 건물을 무너뜨릴 정도로 소리를 크게 튼다. 나이가 먹으면 적량 출력을 잡아나가요. 소리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요. 더 크게 틀어달라고 하는데 귀는 나빠지면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음향보다 악기 간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를 못 맞추면 소음이죠. 밸런스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어폰으로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귀 청력엔 아주 좋지 않아요. 음악은 달팽이관으로 들어야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듣다보니 자연스럽게 음향을 하게 된 그가 보유하고 있는 테이프, LP판, CD가 약 1,100장. 게다가 방방마다 쌓여있는 개인장비까지... 엄마 잔소리가 심했는 거 같다고 하자 그렇다며 웃었다. 그는 자신의 많은(?)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 집안 총사령관 ‘엄마’하고도 무던히 싸웠다. 엄마는 그의 애장품들을 가지없는 쓰레기라고 여긴 것. 필자도 음악을 좋아하지만 엄마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됐다.

“어느 날인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CD만 있고 부틀렉이 없어진 거예요. 엄마는 종이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거 같아요. 모른다고 시치미 댔지만 부틀렉 없는 CD는 있으나 마나죠.(웃음) 아직까지 잔소리 많이 듣고 있어요. 예전엔 음악을 들으면 잘 따라갔는데 지금은 속도가 너무 빨라 듣기가 어려워요. 음악의 장르면에서 보면 예전이 르네상스죠. 모든 장르가 골고루 발달했는데 지금은 편중되어 있어요.”

4차산업혁명시대가 되면 없어질 직업들로 의사, 번역사, 판사 등등이 거론된다. 음향 관련 직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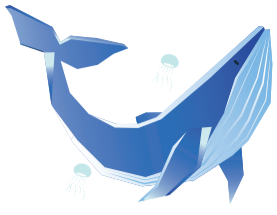
“얼마 전 폐막한 전국연극제에서 심사위원장의 말이 떠오릅니다. 외국에선 도시를 만들면 시청보다 공연장을 먼저 짓는다는 얘길 했죠. 그런 선상에서 공연을 로봇이 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기술발달로 인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분야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요리사마다 맛이 다르듯요. 아직까지 LP판의 경우 바늘 없으면 못 돌립니다.”

그는 대중음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연극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그래서 요즘 희극분야 서적을 읽고 있다. 문화재단에서 일하다보니 공연의 전기도 있고,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는 그다. 요즘 많이 듣는 노래가 뭐냐고 하자 음악사이트 탑 200위권 노래. 취향은 아니지만 대중추세와 흐름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연을 보는중 심금을 울리는 감동의 ‘전율’이 있다면 한번쯤 재단 음향팀이 만들어낸 소리의 ‘음율’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글 오수용당진문화재단경영지원팀
사진 인치수당진문화재단문화사업팀





이야기가 있는 당진 마을 여행 6 - 석문면 삼화리

옛바다를 기억하는 물길과 고찰이 있는 마을

겨울을 맞는 11월의 끝자락, 홀로 물가로 향했다. 발을 내딛을 적마다 바스락 거리는 마른 풀잎 소리가 적막을 깨운다. 그마저도 걸음을 멈추자 사라졌다. 손이 시리다. 벌써 손이 시린 계절이구나. 주머니에 손을 찢러 넣고 눈앞의 풍경에 귀를 기울인다.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아니다. 물줄기를 타고 씩씩이 불어오는 바람에 서로의 몸을 부대끼는 갈대들의 노래가 점점 크게 들린다. 눈을 감아본다. 쇠아아. 스으으. 드물게 철새들의 소리도 들린다. 물가를 날아오르려는지 퍼득이는 날갯짓소리며, 저희끼리 지저귀는 소리들.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올 겨울 당진 마을 여행은 석문면 삼화리로 정했다. 석문면 삼화리는 혼자여서 더 좋은 여행지다. 새해를 위해 묵은 마음을 비워내기 좋은 곳이다. 옛 바다를 기억하는 물줄기를 따라 갈대가 피어나는 곳. 겨울이면 철새들이 날아들어 새해를 맞는 곳. 업보를 짊어지고 사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덕각사가 내려왔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곳. 올 겨울 석문면 삼화리에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명상의 시간

석문면 삼화리의 동쪽은 물가와 맞닿아 있다. 석문 앞바다에서 고대를 지나 서산까지 이어졌던 물줄기가 1987년 석문지구 간척지개발사업으로 석문방조제가 들어서면서 바닷물이 막혔다. 다시 말하자면 석문방조제가 들어서기 전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던 이야기다. 서해안의 뱃길을 따라 오도, 해창으로 가는

초입에 보덕포가 있었다. 당시를 기억하는 마을 토박이들은 "인천을 오가는 큰 여객선부터 작은 배들까지 수시로 드나들었다"고 증언한다.

지금은 드넓던 갯벌이 막히고 그 자리에 너른 농지가 조성됐다. 봄이면 찰랑이는 물에 발을 담근 여린 모들로, 가을이면 넘실대는 황금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겨울이면 또 그 나름 장관을 이루는 풍경이 몇 있다. 하나는 철새, 다른 하나는 갈대다. 석문방조제

가 막히면서 조성된 석문호와 석문간척지의 너른 농토 덕에 일찍이 철새가 찾아든다. 농번기 간척지 농민들에게는 유해조수로 천덕꾸러기지만 겨울 여행객에게 철새들의 비행연습은 빼놓을 수 없는 구경거리가 된다.

철새가 노니는 풍경에 멋을 더하는 건 갈대다. 내륙에서 석문호로 이어지는 역천에는 갈대밭이 따라 흐른다. 산에 주로 나는 억새에 비해 키가 훌쩍 큰 갈

대는 찬 겨울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서로 몸을 부대끼며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

이 모든 풍경을 오롯이 혼자 만끽한다. 도시의 소음도 일상의 관계도 생각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이 요즘 간절했구나. 보이고 들리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명상의 시간을 자연으로부터 얻는다.



바닷물이 막힌 역천에는 민물고기를 잡는 작은 배와 낚시꾼 그리고 갈대만이 남았다.





새해를 앞두고 나를 돌아보는 여행



벚사람들의 안녕을 빌던 고찰 '보덕사'

보덕포에서 시작된 명상의 시간은 고스란히 보덕사로 이어진다. 보덕사는 보덕포를 찾은 또 하나의 이유다. 보덕포를 발아래 두고 깎아지른 암벽 위에 앉은 보덕사의 법당으로 발길을 옮긴다. 여행지에서 종교와 만날 땐 종파의 다름이나 신의 유무에 대한 믿음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그저 오랜 세월 수많은 인간이 믿고 따르곤 하던 가르침 혹은 절실하게 바라고 기대었던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마음만을 생각한다. 더군다나 바닷길 길목에 위치한 절집인 만큼 보덕사에는 바다로 나가는 벚사람들의 안녕을 비는 이들의 마음이 오래도록 머물렀을 것이다.

절집에 들어설 땐, 일주문을 찾는다. 속세와 의 단절을 의미하는 일주문은 절집의 첫 번째

문이다. 보덕사에서는 자칫하면 일주문을 놓치기 쉽다. 바닷물이 드나들던 시절과 달리 법당 아래 요사채와 너른 마당이 생기면서 지형이 변해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목도 달라진 탓이다. 굳이 몇 걸음을 더 돌아 일주문을 지나 법당으로 오른다. 역시나 아무도 없는 법당에 들어가 오도카니 앉았다. 고요한 시간이 흘러간다. 말없이 조용하니, 작은 바람소리까지 크게 들린다. 보이고 들리는 것을, 떠오르는 생각을, 그저 느껴본다. 가만히 있는 이런 시간이 얼마만인지, 무엇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배우지 않는 여행 또한 얼마만인지. 일도 쉽도 참 바쁜 한해였다. 법당에 나와서도 한동안 보덕포의 물길을 내려다보았다.

보덕사는 호남사람인 해행 스님이 1676년(조선 숙종2년)에 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에 건물이 남아 보수했다는 것을 통해 창건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낙시도 즐기고, 황토찜질도 하고

여행과 사색의 레포츨라면 단연 낙시가 꼽힌다. 보덕포는 낙시로도 유명하다. 보덕포에서는 사시사철 가리지 않고 자리를 펴고 세월을 낚는 강태공들을 만날 수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의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또 하나는 '목욕재계' 아니겠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고대면 응두리에 자리한 황토찜질방에 들르길 추천한다. 황토가마에서 땀을 빼고 숯불에 구운 삼겹살로 몸보신을 하고 나면 다시 새해를 맞을 힘이 불끈 생기는 듯하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관계를 맺고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람 때문에 다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해주는 것 역시 사람이 때가 많다. 2017년 한 해를 살아내면서 나는 또 어떤 이에게 상처가 되었고 위로도 되었을 것이다. 돌아보니 누군가의 가족으로 누군가의 동료로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며 내 역할에 몰두하느라 참 바빴다.

그러니 연말, 연초의 하루쯤은 옷벗고 나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권한다. 나는 잘 있는지, 괜찮은지 한번쯤 물어보는 시간을 갖길. 지난 계절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겨울에게도 한번쯤 눈길을 주길. 그리고 우리 모두 새해에도 안녕하길.

■보덕사: 당진시석문면삼화리 202-28

■당진황토찜질가마: 당진시 고대면 보덕포로 187-29

글: 사진우현선



보덕포와 보덕사 풍경





밴드 '2주희와 3용이'

음악으로 사랑 나누는 밴드

재능 기부, 나눔 콘서트 열며 밴드 결성 클래식, 뮤지컬, 재즈 다양한 장르 소화

음악을 사랑하는 두 명의 주희와 3명의 '용'이 모였다. 교회에서 인연을 맺게 된 이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자는 것에 뜻을 모았다. 재능기부 콘서트 개최를 위해 결성된 밴드는 최근 멤버 중 하나가 전문 기회사에 소속되면서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유학까지 다녀온 음악 전공자인데도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는 후배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걱정 없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장애아동을 후원하기 위한 음악회, 지역 아동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콘서트를 열면서 멤버들이 더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요.”(김주희)

좋아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이기투합한 다섯명의 멤버는 2주희와 3용이란 이름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희 밴드 이름도 재밌어요. 두 여성 멤버의 이름이 똑같이 '주희'고 세 명의 남성 멤버 이름이 모두 '용'으로 끝나요. 그래서 2주희와 3용이가 됐죠. 생각이 건강한 젊은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어서 즐겁고 행복해요.”(김주희)

2주희와 3용이는 뮤지컬,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는 밴드다. 남녀 보컬과 피아노, 드럼, 기타 등 5명의 멤버들은 6명의 객원 멤버들과 협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겨울 크리스마스 재능기부 공연을 앞두고 결성된 밴드는 1년 간 지역에서 이름을 알려왔다. 생활문화예술제, 당진생활음악협회 금요음악회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무대에 올랐다. 지역 곳곳에서 버스킹을 통해 관객을 만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당진문예의전당에서 단독 콘서트도 가졌다. 소통을 주제로 열린 콘서트에서 밴드는 <광화문 연가>, <아버지>, <그대에게>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해 관객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동아리주간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성화에 공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주희 회장은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생계 문제로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하는 밴드가 되고 싶다”며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음악을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밴드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고 있다. 2주희와 3용이의 첫번째 콘서트 역시 당진문화동아리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2주희와 3용이” 밴드는 앞으로도 밴드를 결성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음악을 통해 나누고 소통하는 밴드가 되고 싶다.

김주희 회장은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

들이 생계 문제로 음악을 포기하지 않고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을 하는 밴드가 되고 싶다”며 “좀 더 많은 친구들과 음악을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밴드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2주희와 3용이”는 뜻이 맞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재능기부, 무료나눔 공연이 가능합니다. 지역에서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밴드 멤버 : 회장 김주희(보컬-피아노), 이주희(피아노), 최세용(드럼), 최귀용(기타), 최주용(보컬)
'공연문의 : 010-7707-9872(김주희회장)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어린이책함께읽으며따뜻한지역사회만들기위해고민”

문화재단별별동지선정, “모임공간지원유익” 평등한책읽기,자유로운책읽기,꿈꾸는책읽기추구

“당진은 타지에서 이주해 온 시민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도시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모임에 와서 책을 함께 읽고 나누고 아이들도 함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동네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리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장은 “어린이책시민연대는 어린이책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틈틈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름의 역할을 하는 시민들의 연대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전국 모임인 어린이책시민연대는 평등한 책읽기, 자유로운 책읽기, 꿈꾸는 책읽기를 지향한다. 어린이책을 읽고 바람직한 어린이책 환경을 가꾸며 참 삶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책이라면 어린이들만 읽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이책을 통해 어른이 된 내가 어린시절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어린이책에 등장하는 인물, 이야기를 통해 지금의 내 자신을 비춰보게 되

거든요. 또 어린이책시민연대라고 해서 어린이책만 읽는 것도 아니고요.”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는 일주일에 두 번 정기모임을 갖는다. 그 중 화요일에 열리는 화요모임은 당진문화예술학교에서 진행된다. 당진문화재단의 별별동지 사업에 선정되어 모임 장소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미리 지회장은 “기관이나 단체의 강의실 같은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이면서도 일반 시민들의 모임에게는 진입장벽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대관료를 내면서 모임을 운영하기 어려운 시민 모임에게 당진문화재단의 별별동지는 유익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1년에 한번 별별동지 참여단체들의 성과발표회가 있는데 어린이책시민연대의 경우 그동안 문집을 만들어 발표했다”며 “우리 단체는 책을 읽고 나누는 토론이 주요 활동이다 보니 문집을 발표했었는데 올해는 일반 시민들과 더 나눌 수 있는 대중적인 성과발표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는 정기적인 책토론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도서관의 공공성을 주제로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활동에 집중했다.

“저희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하는데요. 올해는 도서관의 공공성에 관한 다양한 활동했어요. 청소년 선거 참정권 운동에도 동참했고요. 열

마 전에는 인터미널에서 열린 노동문화제에 참여해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알리는 활동도 했어요.”

이밖에도 빛그림상영회, 책 읽어주기 사업, 달공부 - 영화로 보는 페미니즘, 독서문화축제 체험부스 운영, 당진인문학시즌 2018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에는 19

명의 정회원과 3명의 후원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책시민연대는 매년 봄, 신입회원 모집기간을 통해 기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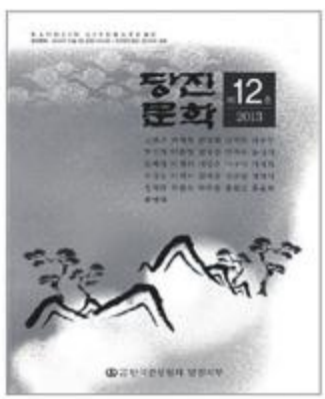
문의: 김미리 지회장 010-7107-5284
후원계좌 351-0985-5349-73
농협 김진희
(어린이책시민연대당진지회)

당진문학 40년사 2 < 당진문학의 뿌리를 찾아서1 >

당진문화재단은 당진문화학적 작업으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진문예의전당내 '당진예술자료센터'를 개원해 지역문화예술사료를 수집·정리를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당진예술사'의 편찬입니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당진문학사' (2016년 발간/집필진: 윤성의, 고완수, 이종미, 홍윤표, 이정음)입니다. 이를 차례로 발취·정리해 당진문학의 태동과 문단의 궤적을 소개드립니다. 이는 향후 완벽한 당진문학사와 문단사를 위한 기초작업이 될 것입니다. 원문의 내용을 읽기 쉽게 일부 임의 수정하였습니다.

- 제1회 당진문단사 '당진문단의 시작과 흐름' - 제2회 문학단체사 '당진문학계를 이끌어온 문학단체들'

당진문학계를 이끌어온 문학단체들



△당진문학



△연호시문학강간호 출판기념회



△연호시문학



제11집 출간 및 시화전

1. 한국문인협회 당진시지부

(사)한국문인협회 당진시지부(이하 당진문협)은 2000년 8월 26일에 창립되었다. 당진지역의 문학발전을 도모하며 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로 작가 권익 옹호 활동과 기관지 발행 및 출판사업, 연구발표회와 강연회 및 문학강좌 등 사업을 추진한다. 회원자격은 한국문인협회 또는 한국문인협회 총남지회 회원인 사람,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 권위 있는 문예 전문지에 추천 또는 신인상을 받은 사람, 개인 창작집을 출간한 사람이다.

「당진문학」은 2002년 5월 25일에 글방의 기획과 편집을 거쳐 창간호를 발행하고, 현재까지 매년 발간하고 있다. 당진문협은 「당진문학」의 발간과 다양한 행사 개최, 다른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목적달성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당진문협회가 제시한 향후 목표는 개인창작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다양한 문학행사를 통해 당진문학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착고한 문인에 대한 관심도 빼놓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당진문협은 당진과 관련이 있으나 당진에서 잊혀진 윤곤강 시인을 재조명하려 노력했다. 황산 이종린 선생이나 문무겸 시인, 이완식 시인, 김종섭 시인, 공관식 시인, 오춘자 소설가 등이다. 특히 이들의 문학작품 유실을 막기 위한 전집 발간이나 추모문학제, 심포지엄과 같은 행사를 벌이는 일은 당진문협의 남은 몫이다.

2. 나루문학회

나루문학회는 당진지역 6개 문학단체에 비해 가장 긴 역사를 가졌다. 나루문화예술인들이 향토 문화예술의 발전을 다짐하며 1980년대에 발족한

것이 나루문학회이다. 9명의 문인들이 당진 최초로 나루문학회를 결성하고, 한해 평균 14~16명의 회원을 유지해 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다수의 문인을 배출하였고, 「나루문학」 등 다수의 문집을 발간하였다. 회원들은 나루문학은 단순히 글쓰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당진지역 문학의 역사요, 뼈대 굵은 문인들이 배출한 산실이다. 당진문학 발자취를 밝혀줄 증거라고 자평했다. 처음 출항 시는 홀로 떠났지만 당진항에서 연호시문학회, 호수시문학회,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 당진시인협회, 당진수필문학회 등 동료 문학단체를 만나 함께 항해하는 중이다.

3. 호수시문학회

당진문단에 촛불을 켜고자 우선 인적자원을 모으는데 초점을 두고, 1993년 광고 언론지인 벼룩시장을 찾아 시문학에 관심 있는 동호인을 찾는다는 광고를 냈다. 문학단체의 명칭은 호수같이 맑은 시심으로 시문학의 열정을 갖자고 '호수시문학회'라고 정했다. 현재까지 결호 없이 매년 동인지 발간은 물론 시화전, 윤곤강 시인 학술대회를 비롯

해 포럼 등을 개최하므로 전문화된 시문학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문학은 의미 자체도 어렵지만 학문과 언어에 술이라는 차원에서 더욱 어렵다. 창립 이래 발행된 동인지를 살펴보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0년마다 특집을 꾸미고 시화전을 개최하고 시인발굴을 위하여 최근 들어 현대시의 거장 윤곤강 시인에 대한 관심으로 묘지정화며 시세계 연구를 위한 문학포럼을 2013년도부터 개최해왔다.

4. 연호시문학회

연호시문학회는 1999년 6월 9일 창간호 「나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를 발행한 이래로 2015년 제 15집 「간절해야 꽃이 핀다」를 발간했다. 처음 결성한 시기는 1998년 4월이다. 당시 지역에도 지역의 문학단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미 1987년도에 결성된 버그네문학회란 단체가 있었다. 버그네 문학이 중단된 계기는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회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회원부족과 책 발간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들이었다. 이런 가운데 나루문학 선배들이 버그네문학회와 서로 통합하

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일부회원들이 나루문학으로 들어가 활동하게 되었다.

연호시문학회는 결성당시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글쓰는 분야는 시·수필·소설로 분류됐다. 문학의 형식면에서 그 층은 결코 두텁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표현을 갈망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15년엔 제15집 「간절해야 꽃이 핀다」를 발간, 함덕성당 성체거동 축제기간에 배너 시화전시회를 가졌다.

5. 당진시인협회

시는 99%의 노력과 1%의 재능으로 본다. 시인이면 시다운 시를 써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진시인협회(이하 협회)가 창립됐다. 문학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당진의 기성시인들은 그대로 놔두고만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결성과 다짐으로 협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협회는 오랜 고심 끝에 2008년 2월 16일 10명의 발기회원 중 5명이 참여하여 정관 초안을 작성했고 첫 모임은 당진 원당골 차리인동네에서 진행됐다. 같은해 4월 24일 같은장소에서 창립총회 후 본격적인 창작활동을 시작, 동인지 발간사업과 부대사업을 구상했다.

창간호 이미시단은 당진이 낳은 '심훈'의 상록수정신을 계승하여 이어갈 각오로 제목을 「당진은 문학이다」라고 사업적 성격을 띤 슬로건처럼 표제를 정했다. 회원들은 당진의 시문학 육성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우선하고 있다. 2008년 창립 이후 2015년까지 발행한 동인지 8집과 특성을 살린 특집호 3권의 시집을 엮었다.

(발취·요약) 오수용 당진문화재단 경영지원팀



△호수시문학



△나루문학계 3집 출판기념회



△나루문학



△이미시단



올여름이 사업!

>> 2018 당진 올해의 문학인 선정

>> 이시대의 당진 문학인 선정

정순열, 박민식, 이옥하 작가 선정

남상원 전 나루문학회장 선정

올해 연말 출판기념회 개최 예정

당진문학에 기여한 역할과 공로 인정



정순열



박민식



이옥하

정순열, 박민식, 이옥하 작가가 2018 당진 올해의 문학인 출판사업에 선정됐다. 당진문화재단은 매년 당진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문학 활동을 한 문학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책 발간의 직접적인 경비와 출판기념회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희곡분야에는 정순열 작가가 선정됐다. 정순열 작가는 1988년 월간문학을 통해 희곡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며 1992년 세계일보 신춘문예에서 희곡작품으로 당선된 바 있다.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시 분야에 선정된 박민식 작가는 2012년 월간 시사문단을 통해 등단, 2016년 인터넷 문학상(계간 문학사랑)을 수상했으며 현재 당진시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옥하 작가는 2013년 월간 시사문단 신인상으로 등단, 2015 빈어백 동인문학상을 수상, 연호시문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 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출판작에 대해 분야별 심사위원의 2차에 걸친 심사를 진행, 최종 선정작을 결정했다.

남상원 작가가 2018 당진 이시대의 문학인으로 선정됐다. 당진문화재단은 황무지와 같았던 당진문학의 초창기부터 문학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꾸준히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남상원 작가의 역할과 공로를 지역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추천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남상원 작가를 선정, 발표했다. 남상원 작가는 당진 정미면에서 태어났다. 1981년 나루문학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해 1991년 교단문학으로 등단했다. 이후 1988년, 1989년 나루문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추억만들기>, <하얀 그리움이 호숫가에 머물 때>, <잠시 멈춰 마음으로 부른 노래>가 있다.

재단은 해마다 <당진 올해의 문학인>과 더불어 당진지역 문학계 발전을 위해 힘쓰고 이끌어온 원로 문학인을 선정하고 있다. <이시대의 당진 문학인>으로 선정된 원로 문학인의 작품을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원로 문학인을 시민들에게 알리므로써 지역 문학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재단은 만 60세 이상으로 등단 이후 당진문학계에서 25년 이상 활동한 지역 원로 문학인을 대상으로 <이시대의 당진 문학인>을 선정하고 있다. 선정자는 당진문인협회를 비롯한 지역 문학동인회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구성, 선정기준과 방법 등 절차에 맞춰 최종 선정한다.

// 올겨울이 공연! 2018 당진문예의전당 시즌 공연

당진문예의전당과 함께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하는 송년 공연 (아듀 2018)

당진문화재단은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연말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송년 공연을 준비했다.

더원과BMK의듀오콘서트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더원과 BMK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 12월11일 당진문예의전당 그랜드콘서트로 꾸며지는 공연에서 두 가수는 소울, R&B, OST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화려한 연말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원은 2012년 '나'는 가수다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이후 불후의 명곡 등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대표곡으로는 '사랑아', '겨울사랑', '내 여자' 등이 있다.

BMK는 한국 가요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하는 소울의 대가로 불리며 뛰어난 가창력으로 대중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8090대표 뮤지션들의 (추억소환콘서트)

김완선, 박남정, 양수경, 김혜림이 한 무대에 오르는 추억소환 콘서트가 올 연말 당진에서 열린다. 당진문예의전당은 8090세대를 대표하는 뮤지션들의 콜라보 공연으로 <추억소환 콘서트>를 기획, 12월13일 당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콘서트에는 한국의 마돈나라는 수식어를 만들어낸 김완선, 1980년대 후반 최고의 인기스타이자 춤꾼으로 사랑받은 박남정, 1980년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 등 히트곡을 발표하며 사랑받은 양수경, 1989년 솔로로 독립해 '디디디'의 히트곡을 발표한 김혜림 등이 무대에 오른다.

힙합그룹 다이나믹듀오 & 리듬파워

대한민국 대표 힙합그룹 다이나믹듀오와 리듬파워의 뜨거운 무대가 12월15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펼쳐진다.



당진문예의전당 그랜드콘서트로 준비된 이날 공연은 두 힙합 그룹과 DJ의 공연으로 보컬, 랩, 디제잉 등이 어우러진 힙합콘서트로 꾸며질 예정이다. 문예의전당은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를 위해 최고의 음향장비, 조명장비, 영상이 함께하는 겨울시즌 공연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화려한 연말공연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다이나믹 듀오는 개코와 최자가 함께하는 남성힙합으로 'Ring My Bell', '고백' 등 히트곡을 선보여왔

다. 리듬파워는 Boi B, 지구인, 행주로 구성된 3인조 힙합 그룹이다. 다이나믹 듀오의 레이블 아메바 컬처 공개 오디션에 발탁되었으며 현재 오버에서 활동 중이다.

정인과에디킴의콜라보공연

오는 12월18일에는 정인과 에디킴이 콜라보 공연을 선사한다.

재단은 2002년 데뷔 이후 역량이 있는 뮤지션으로 꾸준히 인정받아 오고 있는 뮤지션 정인과 달콤하고 설렘 가득한 앨범들로 사랑받고 있는 뮤지션 '에디킴'의 콜라보 공연을 통해 성숙함과 감성을 자극하는 연말 공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평양공연에 참가한 실력과 가수 정인과 짧은 활동기간에도 '너 사 용법', '밀당의 고수', '이쁘다니까' 등 다수의 히트곡을 만들어낸 싱어송라이터 에디킴이 'best collabo'란 주제로 관객들에게 최고의 무대를 선물할 예정이다.

데이브레이크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올해 당진문예의전당 송년공연 마지막은 데이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가 장식한다. 12월21일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데이브레이크 콘서트는 연말을 맞이해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한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물 같은 공연이 될 것이다.

데이브레이크는 2007년 데뷔한 밴드로 이원석, 정유중, 김선일, 김장원이 멤버로 활동하며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었다 놔다' 등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안정적이면서도 차별화된 연주실력과 뛰어난 가창력, 여러 차례 검증된 음악성은 물론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 출연으로 대중적인 인지도까지 얻고 있는 그룹이다.

당진문예의전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해 대중적이고 예술성있는 대중가수의 공연으로 전세대가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를 준비했다. 특히 관객들이 지역에서 따뜻하고 감동있는 문화공연을 향유하며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다 공연장보다 저렴한 입장료를 책정해 공연장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다.

당진문화재단뉴스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간여행 당진문예의전당 회원음악회



당진문예의전당 회원음악회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간여행'이 지난 10월 12일 열렸다.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는 다국적 단원으로 구성되어 클래식을 비롯한 서양음악과 한민족의 얼을 간직한 아리랑, 민요 등 동양음악까지 폭넓은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전세일 단장이 이끄는 아리랑심포니오케스트라는 서양고전과 그림자 공연, 한민족의 아리랑을 주제로 한 대규모 아리랑 공연 등 다양한 힐링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클래식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서양오케스트라와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융합한 기획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연주 단체다.

한편 이날 무대에 당나루색소폰동호회가 특별출연했다. 당진문화재단은 매년 문화회원(유료회원)을 위한 회원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8 당진연극제 성황리에 개최 전국 10개 극단, 12일간 향연



2018 당진전국연극제가 당진문예의전당에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극제에는 전국 10개 연극단체가 참석해 감동과 재미를 더한 무대를 선보였다.

11월 9일 개막공연으로는 <극단 당진>의 '그날이 무대에 올랐으며 뒤이어 <아트컴퍼티원>의 '숨바꼭질', <극단 한울림>의 '백마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극연구집단 시나위>의 '빨', <극단 백운무대>의 '다시라기', <극단 청년극장>의 '달나라 연속극', <극단 해움>의 '내생애마지막 비가', <울산시어터예술단>의 '나는 각설이로소이다', <시어터컴퍼티웃기>의 '풍경A', <극단 페아프르 고도>의 '내사랑 하이엔이' 공연됐다. 당진문화재단은 2018 대외 협력 공연전시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당진전국연극제 개최에 있어 개·폐막식 운영, 음향 및 조명장비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11월 19일 폐막식에서 당진문화재단과 이지원 문화사업팀장과 나슬기 팀원이 각각 공로상을 수상했다.

특별콘서트로 당진 찾은 '헤은이' 당진문예의전당 2018 문예회관상 수상기념



당진문예의전당 '2018 문예회관상 수상기념' <The Diva Of Divas 헤은이> 특별콘서트가 지난 10월 27일 개최됐다.

1975년 데뷔 앨범부터 지금까지 가요 차트 1위에 오른 곡이 총 17곡에 달하는 가수 헤은이의 콘서트는 특히 중장년층의 관객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헤은이는 데뷔곡 '당신은 모르실거야'를 비롯해 '진짜진짜 좋아해', '뽀뽀뽀 뽀' 등 자신의 히트곡과 팝송 메들리 등 30여 곡에 가까운 레퍼토리로 열정적인 공연을 선사했다. 당진문예의전당은 지난 6월 2018 최우수문예회관에 선정됐다. 올해로 5회를 맞는 문예회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상이다. 전국 200여 곳의 공립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 간의 운영에 대해 심사한다. 심사분야는 운영활성화, 지역 문화발전기여도, 인지도, 혁신도 등으로 가장 뛰어난 운영성과를 이룬 한 개의 공연장을 선정해 수상한다.

'희희낙락의 당진아리랑' 개최 공연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 선정



2018 당진 공연예술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희희낙락의 당진아리랑' 공연이 지난 11월 22일 개최됐다.

희희낙락은 문화관광부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소속된 국악예술가들로 구성되어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를 꿈꾸며 젊은 국악인의 패기와 열정으로 연주하는 단체다.

당진문화재단은 지역 공연예술단체들을 대상으로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 전문공연예술단체에게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지역 공연단체의 우수공연을 소개해 역량을 알리고 더불어 공연장의 운영활성화와 프로그램 다양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민예술아카데미 수강생발표회 개최 1년간 익힌 기량과 성과 발표



2018 시민예술아카데미 수강생발표회 <한걸음>이 지난 1일 개최됐다.

당진문화예술학교 공연장과 로비에서 열린 수강생 발표회는 크게 공연과 전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2018 시민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은 1년동안 26개 강좌를 통해 익혀온 기량과 성과를 발표했다.

당진문화예술학교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시민예술아카데미를 열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아카데미 강좌는 우쿨렐레, 하모니카, 성악, 바이올린, 한국무용, 방송댄스, 연극아날자 등 이모작음악교실, 셀위댄스, 문예놀이터 등 3개 분야 26개 강좌로 운영됐다.

7개 문화동아리 공연, 전시 지원 당진문화동아리 활성화사업 공모



당진문화재단이 2018년 한 해 동안 당진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7개 동아리의 공연과 전시를 지원했다.

재단은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동아리, 2주회와 3용이, 장구치는아이들/장구바람, 당진캘리그래피연합,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지회, 리턴즈, SrB소리별색소폰양상블, 알리스응원단 등의 공연 및 전시를 개최했다.

재단은 문화동아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장을 통해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더불어 공연 및 전시개최를 통한 공연장, 전시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7080 레전드 '조덕배' 공연 10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7080 레전드 시리즈 : 조덕배> 공연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진행됐다. 10월 31일 하우스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진 무대에서 조덕배는 100분에 걸쳐 관객과 호흡했다.

우리나라 2세대 싱어송라이터 조덕배는 이날 공연에서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등을 찬조출연한 윤오는 '신부에게', '사랑했지만' 등을 노래했다.

당진문화재단은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기획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소리꾼 이봉근 with 적벽' 11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



당진문화재단 11월 문화가 있는 날 특별공연으로 소리꾼 이봉근이 당진을 찾았다.

11월 28일 열린 <소리꾼 이봉근 with 적벽>의 공연은 관객들이 출연진과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호흡하며 세밀한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하우스콘서트 컨셉의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악계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 이봉근 명창과 그와 함께하는 실력과 밴드 적벽은 이날 관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뜨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어린이 관객을 위한 뮤지컬 <로보카 폴리> 2018 키즈스테이지



당진문화재단이 올해 첫 선을 보이고 있는 2018 키즈스테이지 무대로 뮤지컬 <로보카 폴리>가 공연됐다. 11월 3일 2회에 걸쳐 당진문예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날 공연

은 꼬마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당진문화재단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지역 아동 등 문화배려계층을 초대해 함께 공연을 즐겼다. 재단은 앞으로도 유니세프 선정 아동친화도시 당진에 걸맞는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아동 및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당진문화재단은 한해 동안 많은 알곡과 과일을 수확했습니다.
당진문화재단 소식지 독자 여러분과 지면을 통한 만남을
빠짐없이 해온 것 또한 소중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보내는 해와 마주 설 때마다 아쉬움이 밀려옵니다.
당진문화재단 또한 시민들과, 독자들과 더 소통하고
더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해가 다가옵니다.
올해 남은 아쉬움을 새해의 다짐과 희망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한 후회는 털고,
미련은 새해 바라는 일을 성취하는 밑거름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남은 연말 행복하세요.

- (재)당진문화재단 올림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2018 문예회관상] 수상기념
당진문예의전당 '대중음악콘서트' 축제
Adieu 2018

「나는 가수다」 레전드
The One & BMK



2018. 12. 11. TUE 19: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주최·후원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문의 | (041) 350-2911~4
예매 | www.dangjinart.kr
티켓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할인 | ▶ 문화회원(4배)·예술인(배스)본인만(적용) 30% ▶ 고등학생·이재학(생)증 지참) 30% 본인만 적용
▶ 청소년 만20세~만24세 이하(신분증 지참) 20% 본인만 적용 ▶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50%
※ 장애인(1~3급) : 본인 및 동반1명, 그 외 본인만 적용 ※ 국가유공자증, 학생(1~2급)증 소지자 : 본인 및 동반1명 적용
※ 해당증명자료(신분증, 학생증, 예술인배스,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없이 지참, 이 지참 시에는 현장에서 차액 지불 후 입장가능.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2018 문예회관상] 수상기념
당진문예의전당 '대중음악콘서트' 축제
Adieu 2018

추억소환 콘서트



2018. 12. 13. THU 19: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주최·후원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문의 | (041) 350-2911~4
예매 | www.dangjinart.kr
티켓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할인 | ▶ 문화회원(4배)·예술인(배스)본인만(적용) 30% ▶ 고등학생·이재학(생)증 지참) 30% 본인만 적용
▶ 청소년 만20세~만24세 이하(신분증 지참) 20% 본인만 적용 ▶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50%
※ 장애인(1~3급) : 본인 및 동반1명, 그 외 본인만 적용 ※ 국가유공자증, 학생(1~2급)증 소지자 : 본인 및 동반1명 적용
※ 해당증명자료(신분증, 학생증, 예술인배스,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없이 지참, 이 지참 시에는 현장에서 차액 지불 후 입장가능.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2018 문예회관상] 수상기념
당진문예의전당 '대중음악콘서트' 축제
Adieu 2018

정인
Jung In

에디킴
Eddy Kim

Best Collabo



2018.12. 18. TUE 19: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주최·후원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문의 | (041) 350-2911~4
예매 | www.dangjinart.kr
티켓 |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B석 3만원

할인 | ▶ 문화회원(4배)·예술인(배스)본인만(적용) 30% ▶ 고등학생·이재학(생)증 지참) 30% 본인만 적용
▶ 청소년 만20세~만24세 이하(신분증 지참) 20% 본인만 적용 ▶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50%
※ 장애인(1~3급) : 본인 및 동반1명, 그 외 본인만 적용 ※ 국가유공자증, 학생(1~2급)증 소지자 : 본인 및 동반1명 적용
※ 해당증명자료(신분증, 학생증, 예술인배스,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없이 지참, 이 지참 시에는 현장에서 차액 지불 후 입장가능.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2018 문예회관상] 수상기념
당진문예의전당 '대중음악콘서트' 축제
Adieu 2018

송년콘서트
꽃길만 걷게 해줄게

DAYBREAK
데 이 브 레 이 크

좋다
들었다 봤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2018. 12. 21. FRI 19:30
당진문예의전당 대공연장

주최·후원 | 당진문화재단 | 당진문예의전당
문의 | (041) 350-2911~4
예매 | www.dangjinart.kr
티켓 | P석 4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할인 | ▶ 문화회원(4배)·예술인(배스)본인만(적용) 30% ▶ 고등학생·이재학(생)증 지참) 30% 본인만 적용
▶ 청소년 만20세~만24세 이하(신분증 지참) 20% 본인만 적용 ▶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50%
※ 장애인(1~3급) : 본인 및 동반1명, 그 외 본인만 적용 ※ 국가유공자증, 학생(1~2급)증 소지자 : 본인 및 동반1명 적용
※ 해당증명자료(신분증, 학생증, 예술인배스, 복지카드, 유공자증 등)없이 지참, 이 지참 시에는 현장에서 차액 지불 후 입장가능.